

ITMF의 2003년 세계 면 방직 설비 통계

ITMF(International Textile Manufacturers Foundation)는 매년 세계 주요국의 단섬유 방직 설비의 설치 현황, 원료 소비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 조사는 2003년판이 발표되어 1990년 이래의 변동을 참고로 소개한다.

◎ 정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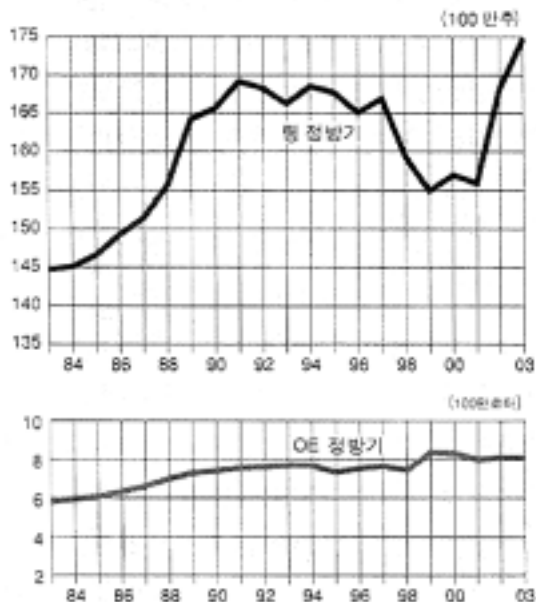
<표 1> 링 정방기 설치 상위국

1990년		2003년	
	만추(점유율)		만추(점유율)
① 중국	3,800(23%)	중국	5,942(34%)
② 인도	2,665	인도	3,703
③ 미국	985	파키스탄	928
④ 소련	900	인도네시아	780
⑤ 브라질	800	터키	634
소 계	9,150(55%)	소계	11,987(69%)
⑥ 일본	768	브라질	44
⑦ 파키스탄	545	타이	361
⑧ 인도네시아	450	멕시코	350
⑨ 터키	377	방글라데시	247
⑩ 대만	368	이집트	230
⑪ 한국	365	일본	222
⑫ 멕시코	355	이란	220
⑬ 이집트	318	대만	210
⑭ 타이	300	러시아	190
⑮ 루마니아	200	미국	167
세계 합계	16,554	세계 합계	17,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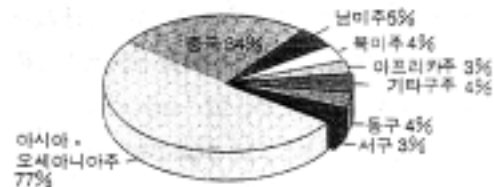
① 링 정방기

2003년 말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링 정방기의 추수는 1억 7,451만 2,850추로서 1990년과 비교하면 2001년부터 추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1>의 링 정방기 도면을 보면 1990년을 경계로 하여 1980년대부터 1990년까지 시설이 급증하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1997년까지는 1억 6,500추~1억 7,000추 사이에서 증감하면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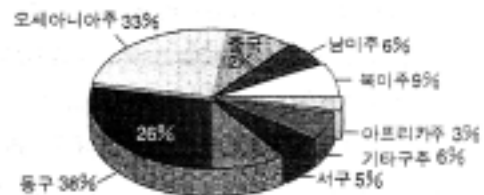
그런데 1997년부터 중국이 면방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면방 제품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1999년 말까지 900만 추의 노후 설비를 폐기하도록 하고자 1만추 폐기마다 재정을 지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을 폐기한 결과, 한때 세계의 추수는 1억 5천 5백만추까지 감소하였다. 이 당시에 ITMF는 세계적으로 정방기가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고, 각국에 설비의 감축을 촉진하였다.



<그림 1> 세계의 방적설비의 추이



① 2003년의 링 정방기 지역별 분포 (174,512,850 추)



② 2003년의 OE 정방기 지역별 분포 (8,057,550로터)

<그림 2> 정방기의 지역별 분포(2003)

중국은 링 정방기 추수가 1990년 말에 3,800만추였었는데, 1998년 말에는 4,246만추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3,444만추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증설하기 시작하여 불과 2년만에 1.7배인 6,000만추를 좀 밑도는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2004년말에는 7,000만추를 넘어섰다는 설도 있으며, 2005년 쿼터 프리로 증설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링 정방기 중에서 점유율은 34%로 커졌다.

인도는 한때 중국의 보유 방적 추수를 웃돌았었는데 2002년에 다시 중국에 밀려 밀돌게 되었으며, 서서히 중국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기술의 노하우를 차지함으로써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인도는 그런 면에서 아직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의 섬유 선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인도는 그런 면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링 정방기를 합치면 세계 방적 시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는 1990년과 비교하면 증설 추수는 70%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에는 일본 시장에서의 의존도가 33%로 1/3을 차지하고 있어 정방기의 증설은 일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네시아는 링 정방기가 대부분이며, 그 동안 일본계 기업들이 증설하였다. 터키는 EU 및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추수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05년부터는 쿼터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2003년의 주요 상위 5개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는 모두 계속 증설하고 있어 앞으로도 5위 내 점유율(share)을 유지하면서 55%에서 69%로 증가하였다.

최근에 와서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의 소위 섬유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시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90년에 세계 6위의 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2003년말에는 221만 6천추, 2005년 2월 현재는 129만 8천추로 세계 중에서의 점유율은 0.7%로 감소하였다.

<표 2> OE 정방기 설치 상위국

1990년		2003년	
	만로터(점유율)		만로터(점유율)
① 소련	400	러시아	209
② 미국	69	중국	101
③ 체코	30	미국	57
④ 폴란드	20	터키	53
⑤ 일본	17	인도	48
소 계	536(68%)	소 계	468(58%)
세계 합계	792	세계 합계	806

② OE 정방기

세계의 OE 정방기 규모는 1990-2000년 동안은 800만 로터 내외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003년 말의 설치 로터 수는 806만 로터로서 1990년과 비교하면 불과 1.8% 증가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점유율도 68%에서 58%로 줄어, OE 정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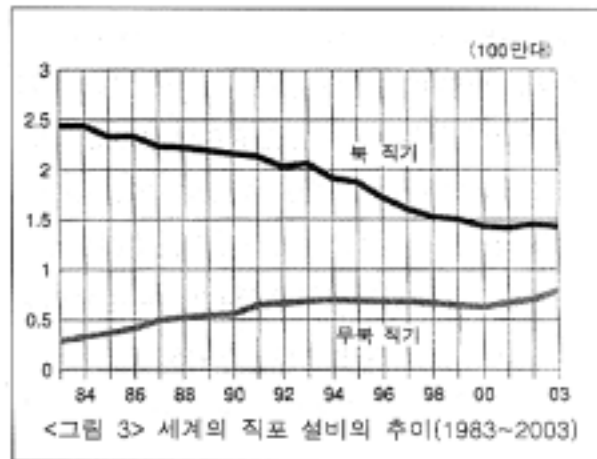
기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성장은 별로 바랄 수 없을 것 같다.

<표 3> 무복 직기 대수 상위국

1990년		2003년	
	만대 (점유율)		만대 (점유율)
① 소련	18.5	중국	21.2(7%)
② 미국	6.6	러시아	8.5
③ 일본	4.5	타이	5.4
④ 한국	2.5	브라질	3.9
⑤ 대만	2.3	미국	3.4
소 계	34.4(57%)	소 계	42.4(53%)
⑥ 이탈리아	1.7	대만	3.4
⑦ 중국	1.6(3%)	인도네시아	2.9
⑧ 브라질	1.5	우즈베키스탄	2.6
⑨ 인도네시아	1.5	파키스탄	2.4
⑩ 폴란드	1.3	터키/우크라이나	1.8
세계 합계	59.9	세계 합계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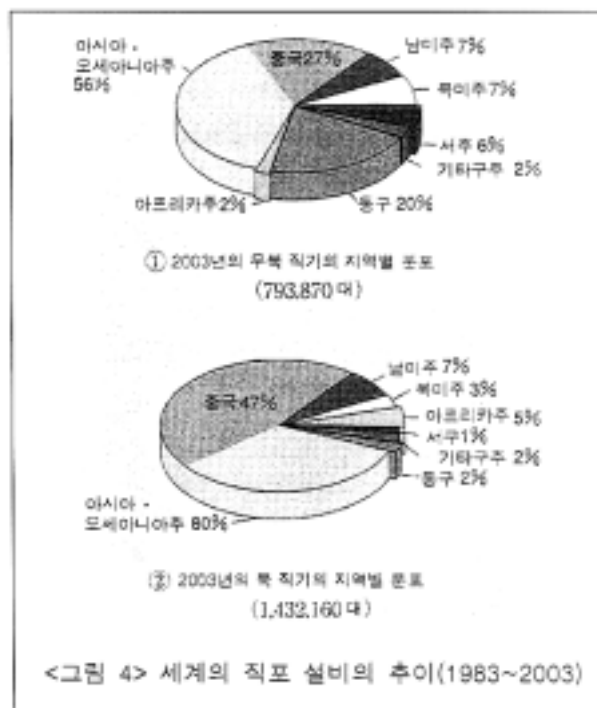
◎ 직기

세계의 면 직기 보유 대수는 1980년대 이래로 복 직기(shuttle loom)가 240만대 수준에서 140만대 수준까지 점차 줄고 있는 데 대하여 무복 직기(shuttleless loom)는 30만대 수준에서 80만대를 밑도는 수준까지 완만하게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래로는 복 직기는 140만대 안팎 수준에서 더 이상 감소도 안하며,



무북 직기는 서서히 증가하여 2003년말에는 79만 3,870대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무북 직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소련은 붕괴 후에도 한 동안 러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의 무북 직기 대수는 1990년에 1만 6천대로 점유율도 불과 3%도 안되었으나 2003년에는 21만 2천대로 1위국으로서 점유율은 10배가 되는 27%로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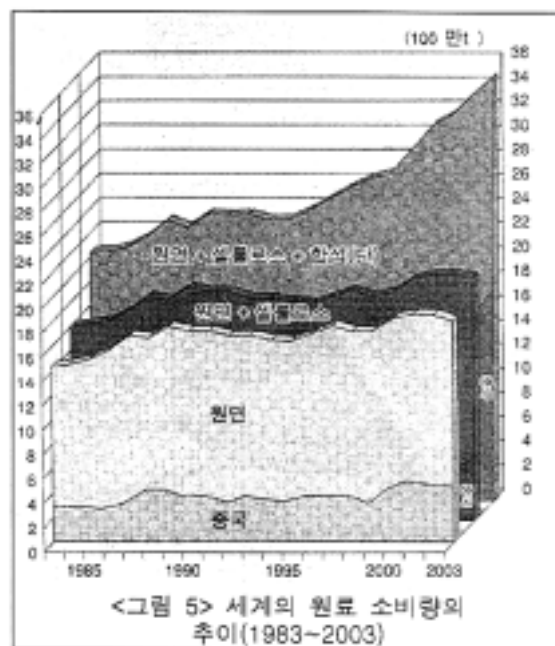


또한 타이는 링 정방기에서 1990년에 14위였었는데 2003년에는 7위로 뛰어올랐고 무북 직기에서도 이 기간 동안 22위에서 3위로 뛰어올라 타이의 섬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직기에서는 1990년에 중국이 85만대로 30%를 밑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는 66만 8천대를 보유함으로써 47%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1위가 되어있다.

◎ 원료 소비

세계 면 방적 설비의 원료 소비량은 경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990년의 2,364만t에서 2000년에는 2,631만t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래로 방적 설비도 증가하여 합섬 단섬유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3,499만t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원면이 1,874만t, 셀룰로스 섬유가 184만t, 합섬 단섬유 1,467만t이었다.



<표 4> 원료 소비 상위국

1990년		2003년	
	만t(점유율)		만t(점유율)
① 중국	520(22%)	중국	1,655(47%)
② 소련	258	인도	355
③ 미국	249	파키스탄	241
④ 인도	210	미국	184
⑤ 파키스탄	115	터키	140
소 계	1,352(57%)	소계	2,575(74%)
⑥ 일본	93	인도네시아	129
⑦ 대만	90	브라질	98
⑧ 브라질	88	멕시코	74
⑨ 한국	60	타이	68
⑩ 터키	58	대만	53
⑪ 인도네시아	49	러시아	32
⑫ 타이	42	방글라데시	26
세계 합계	2,364	세계 합계	3,499

나라별로는 1990년에는 이미 세계의 소비량 중 22%를 차지한 세계 1위의 섬유 대국이던 중국이 2003년에는 1990년의 3.2배가 되는 1,655만t으로 소비량이 늘어 세계 소비량의 근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0~2003년 사이에 중국의 소비량은 1,135만t 증가한 1,655만t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증가량은 이 기간 동안 전세계의 소비량 증가와 같은 규모가 된다.

중국의 급격한 소비량 증가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90년과 비교해 보면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일본의 2003년 소비량은 대폭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